

유기농 육/란 및 육가공품의 현황과 전망

Overview And Prospect Of Organic Meet, Eggs, and Livestock Products

유 병 덕

Isidor Byeong-Deok Yu

국제유기심사원협회

International Organic Inspectors Association

I. 서론

유기축산을 포함한 세계의 유기시장은 20% 이상의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축산물은 농산물에 비하여 유기인증을 성취하기가 매우 어렵다. 유기축산물이 일반 축산물에 비해 생산원가가 매우 높게 들어가는 반면, 소비자의 기대가격은 생산원가 상승 분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소득이 높아지는 만큼 책임있는 소비(Responsible Consumption)가 비례하여 증가하고, 북미와 유럽의 소비자들이 유기축산물을 선호하는 경향은 계속 나타나고 있다. 경종을 통한 유기농산물의 시장규모에 비하면 낙농제품을 제외한 유기축산물 시장규모는 미미한 편이나,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적인 유기축산물 시장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기축산물이 무항생제 축산물과 함께 친환경축산물의 카테고리로 분류되고 있는데, 육류와 알제품은 생산원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무항생제 제품이 유

기제품의 대체재로서 친환경축산물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친환경축산물 시장은 무항생제 축산물 시장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에는 동물복지, NON-GMO사료 등 친환경축산물과는 다른 카테고리이지만 새로운 지속가능 제품들의 유형이 국내외에서 등장하고 있다. 육류와 알제품의 대부분이 무항생제 제품인데도, 무항생제 가공식품이 제도권에서 다루어지지 않아, 무항생제 축산물 가공식품의 발전에 한계가 있다. 유제품을 제외한 유기축산물 가공식품은 그 실적이 매우 미미하여, 무항생제 축산물 가공식품을 제도화하는 것을 법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II. 본론

1. 세계의 유기축산

코덱스 가이드라인¹에서 유기농업이란 생물다양성, 토양

Corresponding author: Byeong-Deok Yu
International Organic Inspectors Association, Box 6, Broadus,
Montana 59317 USA.
Tel: 82-10-9133-5431
Fax: 82-2-2281-9239
E-mail: isidor.yu@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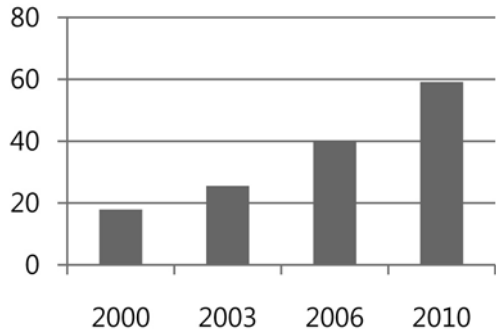


그림 1. 세계 유기식품시장 매출액 변화(단위:십억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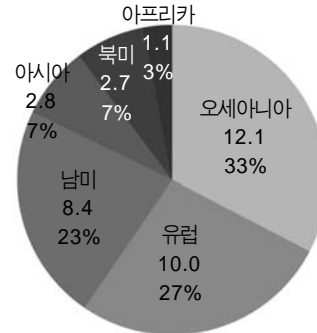


그림 2. 대륙별 유기농업 면적 (단위:백만 ha)²

의 생물학적 활성화, 생물학적 순환을 촉진시키는 농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축산업도 농업의 한 분야로 보고 있으며, 축종을 불문하고 경종에서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생산하는 방법이다.

세계적으로 유기식품 시장은 급속한 발전을 보이고 있다. 전세계 유기농 식품의 시장규모는 2000년부터 연평균 23%의 성장율을 보이고 있다. 이런 성장의 동력은 주로 경종부분 즉, 곡물, 원예작물, 섬유제품이라 할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축산업 제품은 발전이 미약한 실정이다. 유기축산이 발전된 지역은 북미와 유럽이라 할 수 있는데, 넓은 방목지를 확보할 수 있고 기후가 온건하기 때문이다.

열대 지역에서는 많은 작물을 생산하여 북미와 유럽으로 수출하고 있으나, 축산 생산물은 미미한 실정이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수입국들은 축산물의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경계를 하는 편이어서 검역 등 수입 절차를 매우 까다롭게 만들어 놓아 이것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작물의 수출에 비하여 매우 까다롭게 요구되는 수입국의 조건에 대해 수출국들은 넘기 어려운 장벽으로 여기고 있다. 이것은 유기축산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축산 제품 전반에 적용되는 어려움이기도 하다.

두 번째 원인은 주요 수입국이 이미 유기축산물을 자급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커피, 차, 열대과일 등의 교역은 서구에서 생산되지 않는 작물로서 수요에 의해 수입이 활성화되었지만, 낙농, 육류, 알 등의 제품은 자국에서 유기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과 환경을 발전

시켰고 충분히 자급할 수 있는 규모로 발전되었기 때문에 수입이 필요 없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남미의 몇몇 국가들은 북미와 유럽으로 유기농 쇠고기를 수출하고 있다. 이것은 물론 수입국의 수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수입국들이 유기축산을 발전시켜 어느 정도 자급하고 있다고 하지만 100%는 아니기 때문에, 그 틈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넓은 방목지를 확보할 수 있는 국가들이 유기축산물 생산을 발전시키고 있는 것이다.

유기축산은 반드시 토양 위에서 동물이 활동하는 것을 기본 조건으로 한다. 동물들이 축사 안에만 갇혀 있거나 움직이지 못하도록 묶어 있다면 유기축산으로 인증 받을 수 없다. 우리나라 유기축산 기준에서도 동물이 자유롭게 개방된 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운동장을 반드시 설치하게 되어 있다. 유럽과 미국의 유기축산 기준에서는 운동장의 개념을 넘어서, 반추동물이 반드시 자연상태 또는 재배상태로 토양에 뿌리를 박고 있는 식물을 뜯어먹게 해야 한다.

이 조건으로 인하여 유기축산이 차지하는 면적이 전체 유기농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세계에서 가장 유기농업을 넓게 하고 있는 대륙은 오세아니아로 세계 유기농업 면적의 3분의1을 차지한다. 호주는 세계에서 유기농업 면적이 가장 넓은 국가인데, 유기농업에 이용되는 토지의 97%가 가축의 방목에 이용되고 있다. 유럽국가로 수입되는 유기농산물 물량의 약 70%가 호주에서 들어온다. 호주는 또한 일본과 미국시장으로 쇠고기 등의 수출

¹ CAC/GL 32-1999, Guidelines for the Production, Processing, Labeling and Marketing of Organically Produced Foods

자료: Amarjit Sahota, Organic Monitor

² 자료: Organic Agriculture Worldwide, FiB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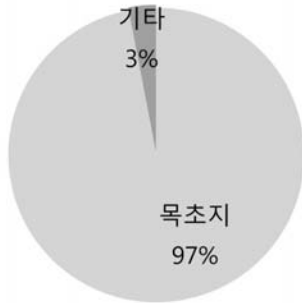


그림 3. 호주 유기농업의 토지 이용 현황³

을 계속 늘리고 있다. 호주의 기후조건과 넓은 목초지는 유기축산을 실시하는 데 천혜의 조건을 이루고 있고, 내수 보다는 수출이 유기농업 특히 유기축산업이 성장하는 동력이 되고 있다.

2. 유기축산 생산비에 대한 영향요소

소비자들이 유기식품에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수요가 늘고 있지만, 소매단계의 가격은 중요한 구매 결정 요인이다. 다른 품목들과 같이 유기축산물의 가격결정은 생산조건에 따라 결정된다. 즉 높은 생산원가를 기록할 수 밖에 없는 조건과 소비자가 기대하는 적정 가격수준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유기 축산물의 생산원가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다음을 들 수 있다.

- 토지이용률
- 사료가격
- 질병에 대한 리스크
- 품질관리시스템(QMS)
- 생산성

토지이용률

관행 축산에 비하여 유기축산은 매우 조방적인 관리를 요구한다. 운동장과 목초지는 관행농업에서 요구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생초를 뜯기는 그레이징(grazing)은 거의 불가능한 조건이다 보니 목초지 대신 조사료포 확보 면적을 인정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관행 축산에서 요구되지 않는 토지 확보 면적이 반영되는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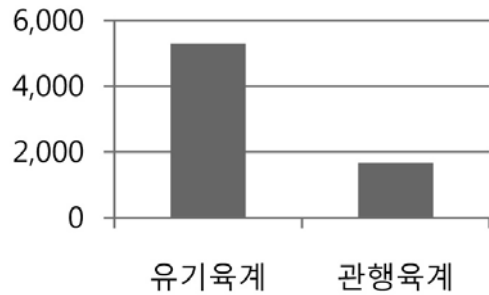


그림 4. 영국 육계 수당 사료값(원)

축사의 시설 면적도 관행 축사보다 넓은 면적을 요구한다. 한/육우 1두당 번식우 기준으로 10m²의 면적이 요구된다. 돼지의 경우 비육돈 1.5m², 옹돈은 10.4m²가 요구된다. 육계는 수당 0.1m²가 우리나라 유기축산의 기준이다.

이와 같이 운동장, 목초지, 축사시설 모두 동물복지와 본능을 만족하도록 관리하자면 관행 축산업에 비하여 매우 조방적인 관리를 할 수 밖에 없고, 토지의 이용도는 낮아질 수 밖에 없다.

사료가격

유기축산에서의 기본 요구사항 중 하나는 가축에게 유기사료를 급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유기사료가 아닌 경우 허용하는 범위는 보조사료와 첨가물까지 이다. 보조사료와 첨가물도 허용된 물질만을 허용된 조건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영국에서 1996년 육계의 사료값을 비교한 결과 유기사료를 급여한 경우 일반 사료에 비해 사료값이 217% 더 높게 들어간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기사료값은 일반적으로 관행사료값에 비하여 단위 중량에 대해 2.5~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성장축진제 등의 첨가물이 사용될 수 없는 점을 고려한다면, 증체율에 비하여 실제 사료값은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유기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가격저항선 또는 지불의사액(WTP)이 일반식품의 20~30%인 것을 감안하면, 생산원가의 증가분과 소비자 가격의 차이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질병에 대한 리스크

유기축산에서는 항생제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³ 자료: Helga Willer 와 Minou Youssefi, IFOAM/FiBL 공동 자료

로, 상대적으로 질병에 대한 노출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동물약품을 통하여 관리하는 대신, 위생적이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 병원균을 관리하여야 하고 가축의 면역력을 높이는 활동을 하여야 한다.

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만큼 약품 사용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질병에 대한 취약함을 다른 대체 수단으로 보완하여 리스크를 낮추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질병에 걸린 가축에게 약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일반가축에서 적용하는 휴약기간의 두 배를 적용하거나(한국의 경우), 유럽의 경우에는 완전히 유기 인증제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목초지에서 생초를 뜯기는 과정에서 야생에서 비롯한 여러 해충들 또는 기생충에 노출되기 쉽다. 생물다양성을 추구하는 유기농업의 특성에 따라서 목초지는 가능한 다양한 식물군이 존재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그런 경우 고인 물이 방치되거나 야생동물의 침범으로 해충이나 기생충이 침투할 수 있다.

따라서 목초지 전체를 청결하게 유지하고 가축 분뇨 등을 보다 더 철저히 관리하여, 예방적인 질병관리를 실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런 작업들은 동물 약품사용을 최소화하는 비용으로서 그만큼의 생산비 상승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품질관리시스템(QMS)

유기축산은 일반축산보다 높은 수준의 품질관리시스템을 요구한다. 유기축산에서는 추적성과 매스밸런스(mass balance)⁴가 적절하게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일반축산에서는 많은 양의 기록이 필요하지 않지만, 유기축산에서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기록이 요구된다.

- 사료, 보조사료, 첨가물 등의 구매 및 급여기록
- 가축의 출처 및 식별체계
- 가축위생보고서, 체세포, 낙하세균수
- 가축검진 및 격리보고서
- 동물약품 사용에 대한 기록
- 생산물 판매에 대한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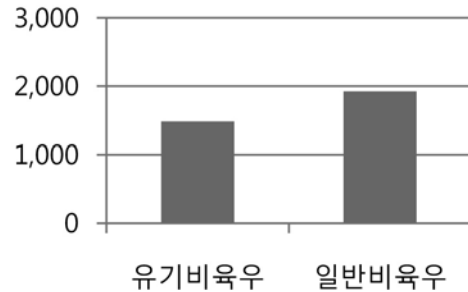


그림 5. 초지 1ha 당 육우 연평균 증체량(kg)

기록을 유지하고 추적성을 관리하는 것은 인증을 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데, 일반 축산업에서 요구되는 품질관리보다 높은 노력량이 요구된다.

생산성

유기축산은 투입되는 비용은 높지만 산출되는 생산량은 낮은 편이다. 영국 유기축산 시범농가의 생산성을 1988년부터 1992년까지 5년 동안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유기육우의 증체량은 일반 육우의 증체량에 비해 7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기축산을 위해 투입되는 자원량과 노력량에 비하여 증체량은 오히려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축산 생산 투입량에 대하여 소득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축산생산자가 일반축산에서 유기축산으로 전환하는 동기가 부여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더구나, 유기농업에서 요구하는 2~3년 동안의 전환기간은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초지를 포함한 모든 축산환경이 유기농으로 완전한 인증을 받기 위해 걸리는 2~3년의 전환기간 동안에는 높은 투입비와 낮은 생산성에도 불구하고 ‘유기’로 표시할 수 없기 때문에, 축산 생산자가 적극적으로 유기축산으로 전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한계는 결국 소비 시장에서 가격을 통하여 보전되어야 하지만, 소비자의 지불의사액은 일반축산 제품의 20~30%에 그치고 있어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 결국 지속가능한 농업 모델로서 유기축산업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자율시장 경쟁에 맡기기 보다는 국가에서 직적지불금 등의 정책으로 지원하는 것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⁴ Mass Balance: 물질수지. 장치 또는 공정의 일부 또는 전체를 적용하였을 때 투입되는 물질과 산출되는 물질의 수량 차이는 적용한 장치 또는 공정에 의하여 생성 또는 소멸되는 수량과 같다는 원리.

3. 농산물 수출국가의 기회

생산 조건이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주요 농산물 수출국가들은 여전히 유기축산업 발전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 유기축산을 시장의 기회로 바라보는 관점에는 다음과 같은 시장 환경들이 작용하고 있다.⁵

- 유럽, 미국, 일본,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의 국가에서 유기축산물 수요가 늘고 있다.
-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영국 등의 국가에서 많은 양의 유기농산물 수입이 지속되고 있다.
- EU 국가들은 유기농 쇠고기, 양고기, 산양유 등의 제품의 주요 수입국이다.
- 오스트리아, 벨기에, 독일, 영국의 소비자들은 유기식품에 큰 프리미엄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
- 2001년에 영국은 16%의 육계와 40%의 쇠고기를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의 국가로부터 수입하였다.
- 인도, 네팔, 아프리카 국가들은 천연 삼림과 소농들에 의해 생산되는 유기농 벌꿀을 수출하고 있다. 꿀벌과 반추동물은 개발도상국들이 유기축산을 개척할 때 유용한 품목들이다.
- 유럽에서는 유기농 면화제품과 함께 동물유래의 섬유제품의 수요가 급속히 늘고 있다. 유기농 가죽, 양모(wool), 실크 등을 원료로 하는 제품의 소비가 크게 늘고 있다.
- 인도와 네팔에는 화학적 약품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 소비자들 사이에서 책임감 있는 소비(Responsible Consumption)가 늘어나는 경향이다.

나미비아(Namibia) 지역에서는 유기농 쇠고기와 양고기를 생산하기 위하여 국가기관을 설립하여 적극적으로 생산자를 지원하고 있다. 핀란드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지역은 소와 양을 대량으로 방목하는 것으로 유명하고, EU 국가들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2010년 3월 수입계약을 체결하였다. 유럽의 많은 국가들, 그 중에도 핀란드는 품질이 좋은 유기 쇠고기와 양고기를 나미비아로

부터 수입하게 되었다. 이 사례는 다른 유럽 국가들에게도 수출의 기회를 찾는 계기가 되었다.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FAO에 의하면, 브라질쇠고기연합⁶은 약 210,000두의 육우를 사육하고 있다. EU 유기농 기준에서는 두당 2 ha의 목초지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브라질은 적어도 420,000 ha의 면적을 유기 쇠고기 생산에 할애하고 있다. 브라질은 유기농 쇠고기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아르헨티나에 있는 가공공장을 매입하고 있다.

멕시코와 니카라과는 내수를 위하여 유기축산 생산확대를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하였고, 우루과이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다음으로 많은 유기농 식육제품을 생산하는 국가이다.

이들 남미의 유기농 고기 수출국가들이 고민하고 있는 점 중의 하나는 주요 수입국인 유럽의 소비자들은 육류의 특정부위만 소비한다는 것이다. 유럽인들은 등심, 안심, 뒷다리의 특정부위만 선호하므로, 다른 부위의 고기들은 내수로 돌릴 수 밖에 없다.

아르헨티나는 20년 이상 유기 식품을 수출하고 있는 국가이다. 아르헨티나는 유기 생산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축산 시장의 새로운 분야를 노리고 있는데, 바로 동물복지에 관한 시장이다. 유기축산의 생산기준에는 동물복지가 포함되어 있으나, 유기축산의 전체적인 생산기준이 복잡하고 성취하기 어려운 조건들로 이루어져 있다. 유럽 소비자들은 유기축산에 대한 요구만큼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많다. 아르헨티나는 이러한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동물복지 축산제품 시장을 준비하고 있다.

동물복지 제품은 아르헨티나뿐만 아니라 태국에서도 국가차원에서 기준을 만들고 축산농가를 지원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와 태국은 동물복지 제품 시장이 계속 확대되어 축산물에 대한 매력적인 시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 국내 친환경 축산

2011년말 우리나라 친환경 경종생산물과 축산물 총생산량은 2,353,852톤으로 전년도보다 10% 감소하였다. 환경 친화적인 소비경향이 지속되는데도, 생산량이 감소한 원인은 저농약 농산물이 폐지가 될 것으로 예고되어 더

⁵ 자료: M.Chander, B.Subrahmanyeswari, R.Mukherjee, 2010, "Organic livestock production: and emerging opportunity with new challenges for producers in tropical countries"

⁶ Brazilian Beef Associ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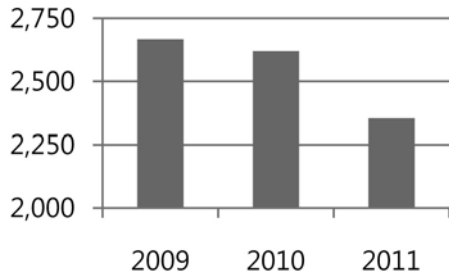


그림 6.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량 변화(단위:천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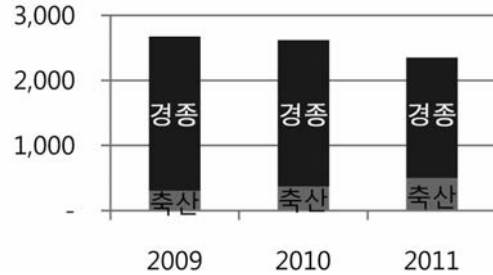


그림 7.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량 변화(단위:천톤)

이상 저농약 농산물의 인증이 늘지 않고 시장에서 이탈하기 때문이다.

친환경 농축산물의 생산량이 가장 높았던 때는 2009년으로서 총 2,667,320톤을 생산한 이래 2010년에 17.6%, 2011년에 10.0% 감소한 실정이다.

친환경 농업의 취지는 관행 농축산업에서 자재를 과용 또는 오염해 오던 생산방식에서 전환하여 지속할 수 있는 농업 생산시스템을 유지하자는 것이다. 전체 친환경 농산물의 58%를 차지하던 저농약 농산물을 없애기로 하면서, 앞으로 친환경 농산물 생산으로 가져온 환경보전이라는 사회적 편익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친환경 축산물은 저농약 농산물과 유사한 카테고리가 없이 유기 축산물과 무항생제 축산물 뿐이고 생산량은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품목별로 보면 계란과 닭고기를 합치면 전체 친환경 축산물 생산량의 79%를 차지하여 가금류가 친환경축산물 생산에서 압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친환경 축산물 중에서 유기 축산물만을 놓고 생산량을 분석하면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전체 유기축산물 생산량의 95%를 우유가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반추동물에 비하여 비반추동물이 유기축산 기준에 맞추어 사육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반증한다.

표 1. 연도별 친환경 축산물 생산량(단위:천톤)

연도	유기	무항생제	계
2005	0.3	0.0	0.3
2006	1.7	0.0	1.7
2007	2.0	11.6	13.6
2008	11.2	137.1	148.3
2009	11.0	298.5	309.5
2010	18.1	386.1	404.2
2011	20.7	480.9	5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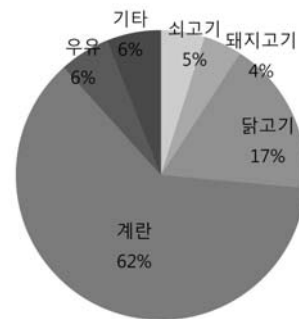


그림 9. 친환경 축산물 품목별 생산 비중(201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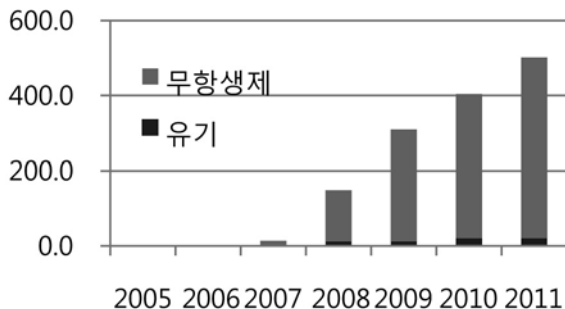


그림 8. 친환경 축산물 생산량 변화(단위:천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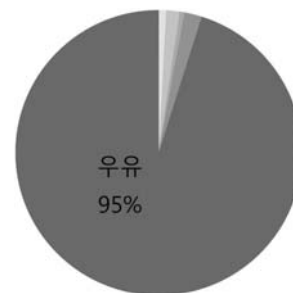


그림 10. 유기 축산물 품목별 생산비중(2011년)

유기 축산물과 무항생제 축산물은 사료의 급여기준을 빼면 대부분의 기준이 같다. 반추동물의 경우 볏짚, 헤어리베치 등 조사료를 많이 먹이는 축종이므로 상대적으로 사료의 자급률이 높다. 또한 유제품은 주로 어린이나 유아들이 주 소비층이므로 식품 안전성에 더 민감하다. 이러한 이유로 우유의 유기생산이 다른 품목에 비하여 높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반추동물을 유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자급사료 기반과 크게 관련되어 있다. 반추동물은 원칙적으로 목초지에서 풀을 뜯기는 방목을 실시하여야 한다. 하지만 조방적으로 토양을 이용하기 어려운 우리나라 축산업 현실에서는 조사료를 공급할 수 있는 재배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방목을 실시하는 유기축산 생산자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대신 토양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조사료 재배지를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유기 축산물은 안정된 사료기반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소비처 확보가 중요하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유기 축산물의 주요 소비처는 한살림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서 맡고 있다.

대표적인 유기농 한우 생산지인 한살림 아산생산자연합회는 한살림의 최대 생산지로서, 2000년대 초반에 벼, 과채류, 버섯, 두부 등을 친환경 농산물로 대량생산하는 체계를 갖추었다. 이와 같은 생산기반은 안정된 소비기반을 갖추는 바탕이 되었고, 농업과 식품 생산의 부산물을 가축의 사료로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유기벼 전용 도정공장을 운영하면서 청치, 미강 등이 확보되고, 두부공장을 운영하면서 비지가 확보되어 사료 원료 자급률을 높였고, TMF 사료공장과 육가공공장까지 운영하게 되어 유기한우 생산기반을 탄탄히 구축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생산기반 구축은 소비자 조합원들의 출자금을 통해 이루어졌고, 생산된 유기한우는 조합원들의 식탁에 오르게 되었다. 한살림 아산생산자연합회의 유기한우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과정은 곧 소비기반을 만드는 과정이었다.

유기한우 생산기반을 이룬 유기 및 친환경 경종 분야는 유기축산으로부터 혜택을 받게 된다. 즉, 자원의 순환을 이루게 되는 것인데, 이런 순환을 유기농업의 이상적인 모델로 여기고 있다. 한살림 아산생산자연합회는 사료의 59%를 자급하고, 퇴비의 10%를 유기축산으로부터 환원하는 자원의 순환 모델을 이루고 있다.⁷

품목별 친환경 축산물 생산현황은 가파른 성장세를 꾸준히 보이고 있다. 하지만 친환경 축산물의 대부분은 무항생제 축산물로 이루어져 있다. 반추동물을 제외하면 우리나라에서 유기 축산물 생산은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무항생제 축산물은 유기 축산물과 대부분의 기준이 같으나, 유기사료가 아닌 무항생제 사료를 사용할 수 있어 사료 선택폭이 넓어지고, 외부공간에서 방사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축산농가가 접근하기에 유기축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또한 소비자에게 ‘유기’와 ‘무항생제’는 여전히 서로 차별화되지 않은 상품이다. 오히려 ‘무항생제’라는 표현이 제품의 특징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는 반면, ‘유기’라는 표시는 제품의 특징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생산자는 무항생제 제품에 비해 시장에서 크게 차별화되지 않으면서도 생산원가가 높은 유기축산 제품을 생산하는 동기부여를 받기 어렵다.

쇠고기

친환경 쇠고기 생산은 계속 늘고 있다. 그런데 유기 쇠고기는 2011년 생산량이 2010년에 비해 무려 60%나 줄어들었다.

앞서 지적한 대로 소비자 관점에서 유기와 무항생제가 그다지 차별화 되지 않은점, 유기축산에서 고가의 유기사료를 급여하여야 하는 등 무항생제 축산에 비해 생산원가가 크게 높고 인증기준이 까다로운 점이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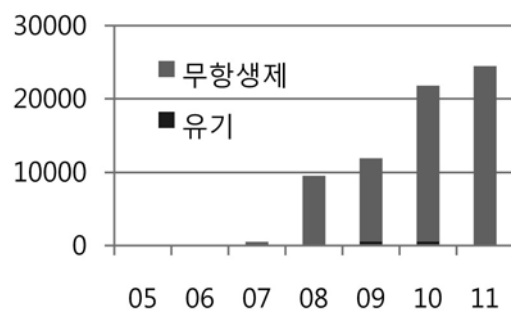


그림 11. 친환경 쇠고기 생산량(단위:톤)

⁷ 자료: 기충연, 한살림생산자연합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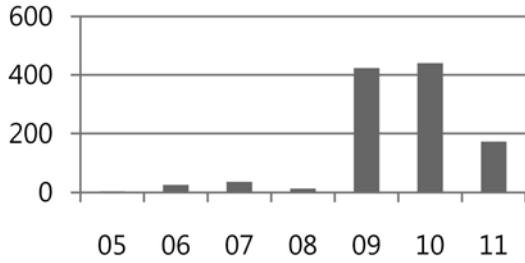


그림 12. 유기농 쇠고기 생산량(단위:톤)

게다가 한우/육우의 경우 다른 축종에 비해 자금회전이 늦어 유기축산을 지속하는데 더 큰 어려움이 있다. 한살림 아산생산자연합의 경우도 2008년 유기한우 697두로 시작하였던 것이 2011년 370두로 줄어든 실정이다. 한살림 아산생산자연합의 생산량 감소는 우리나라 전체의 쇠고기 생산량 감소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⁸

한살림은 일반 시장에 비하여 소비자들의 사회적 참여가 높고, 선진국에서 소비경향으로 나타나는 “책임있는 소비(Responsible Consumption)”를 지향하는 소비자들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기한우 생산량이 줄어드는 것은 생산비와 소비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돼지고기

친환경 돈육 생산량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돈육의 경우도 유기제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미미하다. 2011년 전체 친환경 돈육 생산량 21,594톤 중 유기 돈육은 315톤으로 1.5%에 불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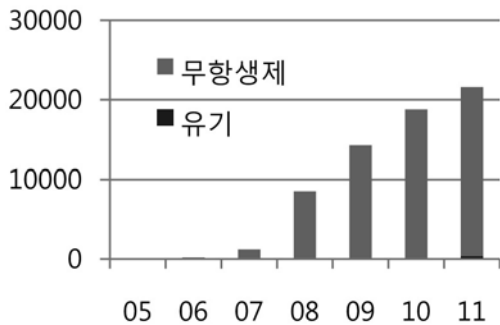


그림 13. 친환경 돈육 생산량(단위:톤)

가금류

유기제품 생산량의 비중은 가금류에서 더욱 낮은 모습을 보인다. 친환경 육계의 99.9%는 무항생제 축산물이다. 2011년 유기 육계는 112톤으로 전체 친환경 육계 86,585톤의 0.12%에 그칠 만큼 미미한 실정이다.

계란의 경우도 상황은 같다. 2011년 유기 계란 생산량은 406톤으로 전체 친환경 계란 31만 톤의 0.13%에 불과하다.

친환경축산물은 축종에 관계없이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다.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은 각각 전년도에 비해 12.3%, 15.0%, 33.5%, 31.1%씩 증가하였다. 가금류의 경우 고기와 알 모두 1년 사이에 30% 이상 증가하는 급속한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민소득이 증가하면서 육류소비가 늘고,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책임있는 소비(Responsible Consumption) 경향이 확대되면서 친환경 축산물 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향후에도 이러한 소비경향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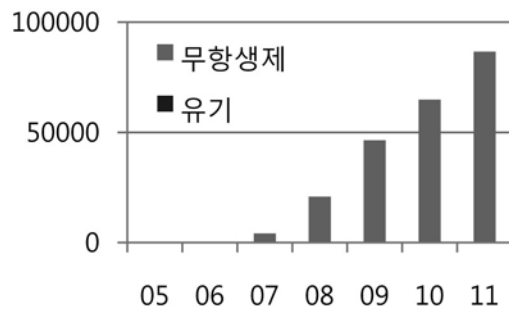


그림 14. 친환경 육계 생산량(단위: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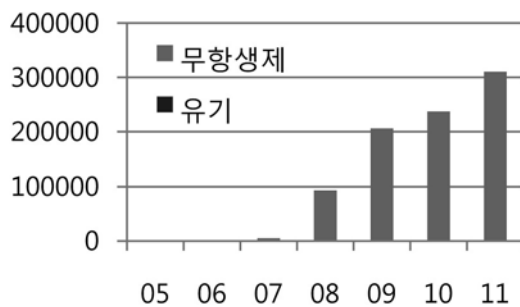


그림 15. 친환경 계란 생산량(단위:톤)

⁸ 자료: 기충연, 한살림생산자연합회

새로운 지속가능 카테고리

생산부분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도 친환경축산물 생산량이 확대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조류독감, 구제역 등 기축전염병은 축산 농가는 물론이고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발생했던 축산업계의 전염성 질병 문제는 관행 축산업이 친환경축산 등 지속할 수 있는 축산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관심을 일으키게 되었다. 기축 질병은 철저히 위생 관리를 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다. 그와 더불어서 동물의 생리를 근본적으로 이해하고 기축복지 등을 실현하는 것도 면역력을 높이고 질병에 대한 리스크(risk)를 낮추게 되어 보다 더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된다는 이해가 확산되고 있다.

무항생제 또는 유기축산은 지속할 수 있는 사육방식의 대표적인 경우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인증기준이 까다롭고 높은 생산비가 요구되다 보니 시장에서는 자발적으로 새로운 유형의 지속가능 생산체계를 도입하고 있다.

이것은 주로 민간에서 주도하여 시장에 도입하고 있는 분야들인데 다음과 같은 종류들이 있다. 이중에 동물복지에 관한 주제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적극적으로 제도화한 경우로서 2012년 3월 20일에 도입된 인증제도이다.

-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
- NON-GMO 축산: GMO 유래의 사료를 급여하지 않고 사육한 축산물. 예)충북 괴산의 한축회
- 국산사료 한우: 100% 국산사료만으로 소를 키우는 방식. 예) 제주한울공동체
- 무(無)옥수수 축산: 옥수수를 급여하지 않고 사육한 낙농에서 우유 생산. 예) 예천 소리농장 팜우유

이와 같이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축산물의 새로운 카테고리들은 브라질과 태국이 동물복지 제품이라는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것과 같이 소비자들의 가치추구 욕구에 맞춘 축산물 분야의 새로운 시장이라 할 수 있다.

축산물 가공

친환경 축산물 중에는 무항생제 축산물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지만, 이것을 가공한 '친환경 축산가공품'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이나 '유기농 전문매장' 등에서는 무항생제 축산물을 원료로

하는 햄, 소시지 등의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이들 제품은 공인된 제품 카테고리가 아니므로 통계자료를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유기 축산물을 원료로 하는 유기 가공식품은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인증이 되어 공식적으로 기록되는 제품 카테고리이므로 확인이 가능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유기 축산 가공품은 유제품으로서, 기타 품목으로 가공한 유기가공식품은 현재로서는 오직 한 곳만이 기록에 나타나고 있다.

유제품을 제외하고, 현재 유기 가공식품으로 인증을 받은 유일한 업체는 충북 음성군의 (주)에그앤시드이다. 품목은 돈육햄, 한우 육포, 돈육 소시지로 세가지를 생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시장과 생산농장의 여건상 유기축산 보다는 무항생제 축산을 중심으로 친환경 축산물 시장이 발전하고 있다. 시장규모로 볼 때, 축산시장에서 무항생제 축산물이 갖는 의미는 유기 축산물의 그것보다 결코 낮지 않다. 이러한 시장환경에서 무항생제 축산물을 원료로 하는 '무항생제 축산가공품' 인증분야를 제도권 안에서 공식적인 카테고리로 만드는 것은 지속가능 제품 시장을 확대하고 발전시키는 데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III. 결론

축산물 생산은 경종 생산물에 비해 생산과정이 복잡하고 높은 비용이 투입된다. 오늘날 대부분의 축산물은 높은 생산성을 갖도록 기술적인 진보를 가져왔다. 하지만 소비경향은 식품의 품질, 안전성, 동물복지, 추적성, 환경친화성 등 지속할 수 있는 가치를 지닌 제품에 대한 수요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러한 소비경향은 세계적으로 유기 축산물 시장을 급속히 확대시키고 있다. 매년 20% 이상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유기식품 시장은 축산생산 방식을 유기적으로 전환하는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경종을 통한 생산물에 비하여 축산 생산물은 수입국의 위생기준이 높고, 자국의 유기축산 생산기반을 잘 다져놓아 높은 수준의 자급률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미와 유럽의 소비자들은 유기 축산물 소비를 계속 늘리고 있어, 열대지역의 수출국가들은 교역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

개별 생산자들이 유기 축산물 생산기준을 따라가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생산비와 소비가격의 균형이 이루어져 있

지 않아 유기축산으로 접근하기가 어려움이 있다. 유기축산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대안재로서 동물복지 제품 등이 시장에 출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생산자가 유기축산을 성취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무항생제 축산물을 중심으로 시장이 성장하였다. 또한 동물복지 축산농장인증 등 유기축산물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카테고리들이 시장에 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유제품을 제외하면 유기축산 가공식품은 시장규모가 매우 취약한 실정으로, 이것을 보완하는 데에는 무항생제 축산물 가공식품 등 대체재에 대한 제도화가 필요하다.

국민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책임있는 소비(Responsible Consumption)가 확대되고 유기축산물 등의 소비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지속할 수 있는 축산생산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농업선진화를 위한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CAC/GL 32 (1999) Guidelines for the Production, Processing, Labeling and Marketing of Organically Produced Foods. **2**, 5.
2. Canadian Organic Growers Inc. (1998) Organic Livestock Handbook. **8**, 74-78.
3. Chander, M., Subrahmanyeswari, B., Mukherjee, R., and Kumar, S. (2010) Organic Livestock production: an emerging opportunity with new challenges for producers in tropical countries. **10**, 970-971, 976-979.
4. FiBL (2012) Organic Agriculture Worldwide. **4**, 8.
5. Willer, H. (2012) Organic Agriculture Worldwide: Current Statistics. PP at BioFach Congress 2012. **2**, 7.
6. 기충연(한살림) (2012) 살림이야기. **17**, 72-75.
7. 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1) 국내외 유기식품 산업 현황 조사. **22**, 17.
8.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2012)
9. 전병수(국립축산과학원) (2008) 유기한우 생산기술. **9**, 5.
10. 전병수(국립축산과학원) (2008) 친환경유기축산. **6**, 6.
11. 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규칙 (2011)